

# 국내 어학연수의 성공적 사례: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

성 기 서

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 외국어교육원장

## 1. 국내 어학연수의 배경 및 필요성

21 세기는 영어 중심의 정보화시대라 예견된다. 이 정보화시대의 공용어가 곧 영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국제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실히 굳힌 미국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 공용어(세계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이미 공용어가 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띤다.

영어 없는 국제 정치·경제·학술·예술 활동을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 나라의 대학생들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제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학원, 개인교습으로도 모자라 초등학교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면서 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이제 필수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값비싼 해외 어학연수는 참여자의 의식과 연수기관의 영리 위주의 연수 실시로 인해, 단기간의 영어실력 향상과 외국문화 이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외화낭비와 외국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사대주의의 유입

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외 어학연수의 경우, 대학원 진학을 빼고는 그 교육적 효과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입증된 예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영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심각한 언어적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이 때로는 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심리적 방해물로 작용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은 사회적·문화적 충격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목표했던 영어공부와 현지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보다는 난잡한 성문화, 알코올 중독, 심지어 마약중독과 같은 삶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을 무비판적으로 배워 오는 폐단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막대한 교육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학부모조차도 해외연수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단순한 상업성에 근거한 유학 알선 업체들이 가세해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이 마치 획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무분별한 해외 영어연수는 대학 등 국내 최고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어 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과 자칫 사대주의적 영어학습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과소비적 영어 교육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외화의 낭비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태도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느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어교육의 태도 면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외국의 문물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급급한 처지에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가진 '뜻대 있는 외국어연수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정보화된 21세기의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외 어학연수가 안고 있는 고비용, 즉 외화낭비, 사회적·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대에서 방학중에 시행하는 영어 캠프는 특히 초·중급의 영어 실력자들에게 해외 영어 연수보다 훌륭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과 증거자료를 제시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 학습자들에게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현 황

국내 어학연수의 새 모델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기획된 '1997년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는 '97년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와 비슷한 국내 어학연수를 처음 시도한 학교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96. 6. 24~8. 2, 참가비: 195만 원)와 서울여자대학교('96년 겨울방학, 참가비: 150만 원대) 등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용 면에서는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

(참가비: 80만 원)가 단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교수진

외국인 교수진은 학생 10명당 외국인 교수 1명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방법은 '97년 3월초 인터넷에 초청광고를 내었고, 이에 40명 이상이 응모하였다. 신청자의 국가 분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화국, 프랑스, 체코, 한국 등이었다. 이 중 30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현재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이 중에서 학력과 강의 경력을 참고하여 6명을 선발한 결과 모두 미국인이었으며, 이들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5명(영어전공 4명, 음악학 전공 1명),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석사과정 재학생이 1명이었다.

선발기준으로 학력과 강의시범 비디오 테이프, 한국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한국에 온 경험이 없고 나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한국 방문 여부를 고려한 이유는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이며, 나이는 세대차에서 오는 거리감을 없애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특히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말에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인터넷 광고에 포함하였다.

### 2) 학생

이번 캠프 참가자는 서원대생 58명, 연세대생, 성균관대생, 충남산업대생, 세명대생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62명이었다. 선발은

교내 홍보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마감시에는 지원자가 많았으나 교수진 초청문제로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들은 외국인 교수의 시험과 면담을 거쳐 능력에 따라 6개 학급으로 배치되었다. 능력별 반편성이 집중영어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24시간 영어만을 쓰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마지막 주일에는 대부분 영어를 일상어로 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아울러 기숙사에서 교수진과 함께 일어나고 식사하며 일과 후에도 특별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언제나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 3) 강의실과 기타 교육시설

강의실은 오디오/비디오 시설과 냉·난방이 완비된 서원대학교 어학실을 이용하였다. 보조 강의실로는 역사문화관, 대형 시청각실, 운동장, 청주 시내 일원을 활용하였다. 숙식은 기숙사를, 야외학습 장소로는 용인 호암미술관, 캐러비언 베이, 속리산, 피산 학생 야영장 등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늘 외국인 교수가 같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전 국토가 강의실 구실을 한 셈이었다. 실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이 외국인 교수진에게 준 감동은 매우 컸으므로, 이야말로 돈 안들이고 이들에게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훌륭한 한국 홍보자원이었다. 이처럼 국내 어학연수는 아름다운 우리 자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알찬 어학 연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4) 강의 프로그램

대부분의 해외 어학연수의 경우 외국인

교수의 강의가 1일 3~4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의 자유활동 시간으로 정하여 학생 자율에 맡기는 반면, 본 캠프에서는 학생들에게 캠프 기간 동안 무조건 영어를 사용하도록 교육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수시로 지적함으로써 스스로 영어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된다. 외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영어회화, 미국 문화 소개, 운동, 음악, 놀이 등)와 한국인 교수진이 영어로 실시하는 특강(기본영어, 단전호흡, 다도, 우리 문화유적 답사, 한국의 전통음악 소개, 정신문화에 대한 특강 등)의 두 분야인데, 그 이유는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외국어 습득은 언어적·문화적 사대주의에 물들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없이는 바람직한 국제화나 세계화는 한낱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특히 외국어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별·요일별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① 매일 정규 프로그램(시간별)

- 06:00~07:40 월·수 : 단전호흡  
※참고) 07:00~08:00 금 : 기초 영어 회화 문법(기초반 선택수업)
- 08:00~08:40 아침식사
- 09:00~09:50 1교시(일반 강의)
- 10:00~11:50 2, 3교시(분반 토의)
- 12:00~13:30 점심식사 및 체육 활동
- 14:00~14:50 4교시(일반 강의)
- 15:00~16:50 5,6교시(분반 토의)
- 17:30~18:30 저녁식사
- 18:30~19:00 TV 시청(CNN News

또는 Captioned Video Tapes)

- ※참고) 18:00~19:00 화·목 : 기초 영어 회화 문법(기초반 선택수업)
- 19:00~20:00 자유 토의 시간 (외국인 교수와 함께)
- 20:00~22:00 개인 공부 시간
- 22:00~06:00 취침

② 매주 특강 프로그램(요일별)

- 월·수 : 06:00~07:40 단전호흡
- 화 : 18:00~19:00 기초 영어회화 문법(선택)
- 수 : 06:00~07:40 단전 호흡  
14:00~ 특강 또는 야외수업: 박물관, 유적지, 사찰, 산업체 방문 등
- 목 : 18:00~19:00 기초 영어회화 문법 특강(선택)
- 금 : 06:00~07:00 기초 영어회화 문법 특강(선택)
- 토 : A : No Class (Homestay Program)  
B : 야외수업 ; 등산 또는 단체 야외활동(외국인 교수와 함께 하도록 지도)
- 일 : No Class. 자유 야외활동(외국인 교수와 함께 하도록 지도)

③ 주별 특강 및 야외활동 프로그램

- 첫째주 : 6/30(월)~7/5(토)  
-7/5(토) : 선유동(외국인 교수진)
- 둘째주 : 7/7(월)~7/12(토)  
-7/9(수) : 다도 특강, 강사: 조기연 (전 서울 "삼화령"(전통다원) 대표)
- 셋째주 : 7/14(월)~7/19(토)  
-7/16(수) : 용인 호암미술관 견학, 캐러비언 베이 방문  
-7/17(목)~7/20(일) : 방학(경주 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 문

무왕 수중릉, 안동 하회마을, 서울 경복궁, 박물관 견학)

- 넷째주 : 7/21(월)~7/26(토)
  - 야영 : 7/21~23(월~수) 피산 학생 야영장 : 야외학습, 운동회, 장기자랑, 등산(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
  - 7/23(수) : 국악의 밤(대금, 가야금, 장구, 판소리, 민요)
  - 7/25(금) : 속리산 및 범주사 견학 (불교문화 이해와 우리의 자연 유산)
- 다섯째주 : 7/28(월)~8/2(토)
  - 7/30(수) : 특강("Who Are You?"), 강사 : Professor Woehrle-Chon
- 마지막주 : 8/4(월)~8/9(토) : 단막극 (Mini Plays) 준비 기간(No Regular Class)
  - 8/4(월) : 시험(필기, 인터뷰)
  - 8/7(목) : 오전 : 단막극 발표  
오후 : 집중 영어학습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및 참관
  - 8/8(금) : 수료식

### 3. 참여 학생들의 평가 및 성과

서원대의 영어 여름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2명 가운데 거의 모두가 이러한 국내 어학연수에 다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본인의 영어실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느낀 응답자는 95%를 넘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캠프를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적

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도 90%를 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평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긍정적 평가

ㄱ. 방학 동안에 해외연수만이 영어공부를 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서원 영어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며 외국인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없어졌고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ㄴ. 영어 청취력과 발음이 많이 향상되었고, 특히 한국인이 잘 틀리기 쉬운 발음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

ㄷ. 개학후 영어회화 강의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하다.

ㄹ. 여름방학을 매우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후배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꼭 권하고 싶다.

ㅁ. 내 의사를 영어로 전달하는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대화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 반 친구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ㅂ.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하면서 관련된 단어와 외국인들의 관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ㅅ. 여러 가지 상황(강의, 대화, 일상 생활, 여행, 주제발표나 토론 등)에서 자극을 받아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ㅇ.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ㅈ. 우리 문화를 외국인 교수에게 가르치

는 기회가 있어 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영어를 배울 수 있었으며, 우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뜰 기회가 있어 참 좋았다.

#### ② 부정적 평가

ㄱ. 야외수업과 특별활동의 일정이 중복되거나 연달아 있어 피로감에 따른 학습의욕 감퇴가 있었다.

ㄴ. 야외수업시 부적절한 시설, 예컨대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아 불편했다.

#### ③ 외국인 교수들의 반응 및 평가

이번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에 대한 외국인 교수들의 평가는 한 마디로 “매우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었다. 6주간에 걸친 강도 높은 강의와 특별활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교수진은 “미국 대학생들과 달리 우리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존경심과 영어학습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는 교수들을 감동시켰으며,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학생들의 드높은 학습의욕과 교수에 대한 존경심에 감동되었다.

ㄴ. 야외수업과 특강, 문화유적 답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훌륭한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

ㄷ.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휘, 발음, 의사표현 능력, 듣기 능력, 억양이 많이 향상되었다.

ㄹ.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 많이 극복되었다.

ㅁ.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ㄴ. 이처럼 훌륭한 캠프라면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대부분의 교수)

무료로라도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자신에게 보람있는 캠프였다.(Mr. Wyatt Galusky)

ㅂ.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야외수업의 운영이 아쉽다.

## 4. 총 평

값비싼 해외 어학연수는 단순한 주입식 영어학습과 관광 및 부정적 외국 문화의 맹목적 모방으로 끝날 위험이 있지만, 이번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식의 영어교육이 가능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문화를 영어로 외국인 교수에게 가르치고, 외국인 교수에게서는 영어로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우으로써 교수와 학생 사이의 장벽이 사라진 이상적인 영어학습 환경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냈다. 즉, 미국 왕복 항공료와 비슷한 금액(참가비 80만 원에 강의 및 숙식 제공)으로 6주 동안에 4배가 넘는 고비용 저효율의 해외연수보다 양과 질에서 훨씬 앞선 영어공부를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헤어지기 섭섭하여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서 학생들이 영어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외국인 교수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이루어냈음을 실증함으로써 이번 영어 캠프는 학문적·경제적·문화적 대외홍보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서원대학이 거둔 성공적인 국내 어학연수의 한 모델이었다고 자부한다.

## 5.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번 서원대 영어 여름 캠프의 외국인 교수진 선발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지만, 국내 어학연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훌륭한 자질과 성품을 갖춘 외국인 교수진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의식이나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외국인을 교수진으로 초빙한다면 그 연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인터뷰, 강의능력 및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진의 출신 국가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뚜렷이 확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다만 영어나 기타 다른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수용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역사 속에서 한국이 말아야 할 역할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는 모든 학문과 배움은 결국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서 영원히 낙오될 뿐 아니라 노예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전과제로서는 “외국어를 잘함으로써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긍지를 더 높이고 사랑하게 되는” 서원대의 “쫓대 있는 국내 어학연수(영어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응용하고, 방학 때마다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행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아가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한국어 여름 캠프’가 열리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

---

섬기서 / 한국의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응인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외국어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자아확장의 비전”이 있으며,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셰익스피어학회 회원으로서 영문학 작품의 문교적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다.